

# 심 없는 포장 신제품 개발 힘써

## 포장용기만 750 여개 발명특허 획득

이정민 / (주)JKA 대표이사

**한**국의 포장분야가 황무지에서 지금까지 일구어 질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낌없는 기술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한몫을 차지했다 할 수 있다. 새로운 창조는 앞으로의 진보를 뜻한다. 포장산업도 새로운 개발을 거듭해 앞으로 한발 한발 내딛으며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제품의 내용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포장 용기이다.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 제품의 맛과 질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수입에만 의존해 왔던 포장용기를 인간 친화적 아이디어로 개발해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주)JKA 이정민 사장은 포장용기만 750여 개의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신개념의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그 동안 수많은 국내외 전시회를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영국에서 개최된 세계4대 기술이전 전시회인 'INNOVATE 2001'에서 자체 개발한 스포츠캡과 접철식 용기가 "올해의 최우수 발명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굴지의 음료, 제약업체들과 기술제휴를 맺으며 벤처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지금에 와있다.

또한 (주)JKA는 일반적인 포장용기 개발업체와는 특이하게 필요한 모든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경우에 따라 타 업체에서 기술평가를 의뢰할 경우에 해당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인력과 특허명세서의 작성은 물론 시제품의 개발까지 ONE-STOP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

어나가는 지식공동체(Joint Knowledge Area)기업이다.

이정민 사장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아침에 잠을 깨면서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항상 포장과 접해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장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특히 음료용기의 경우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 낸다면 새로운 제품을 무궁무진하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포장산업은 현재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욱더 길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아낌없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민 사장은 포장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식 전환'이라 설명했다. "현재 국내 포장기계 대부분은 수입을 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무위주의 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기업이라는 큰 덩어리보다는 제품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포장기계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속해 있는 회사인 (주)JKA의 제품이 얼마만큼의 수출, 판매가 되는지,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먼저 거론된 후 이에 따른 상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품이 아닌 속해있는 회사 규모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피력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기존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이정민 사장의 삶의 목표로써 이는 많은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설명했다.

(주)JKA의 제품중 이번에 선보인 자립형 일회용 포장용기는 별도의 장치 없이도 넘어지지 않도록 착안 됐다. 기존의 리필 용기와 같이 비닐로 제작된 연포장 용기에 있는 내용물을 본 용기에 옮기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펌프를 부착,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다양한 많은 제품을 선보이다 보니 여기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다.

일례로 국내의 C계약의 경우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수차에 걸쳐서 협상안을 제시한바 오히려 콘택트렌즈 세정용기에 관한 의장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최근 특허심판원에서

(주)JKA의 주장대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으며 [계약과도 내용물을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위장약 용기에 관해 여러번 실무 책임자와 접촉하여 협상을 하였지만 [계약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특허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정민 사장은 "처음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제품을 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전 조율 없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간에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민 사장은 "포장 관련 단체는 포장업체가 동등한 투자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해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내야 합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기술개발은 물론 여기에 마케팅을 잘 활용하며 오직 한 분야 즉 포장분야에만 승부를 건다면 반드시 포장산업의 발전을 거듭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독자적인 첨단기술을 많이 보유한 나라만이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기술전쟁, 즉 특허전쟁 시대가 될 것이다. 기초과학의 발전 위에 개발자의 의지를 활성화시킬 때 우리는 지식부국의 진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열띤 모습으로 응한 이정민 사장은 포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느낄 수 있었으며, 쉽 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는 이정민 사장의 앞으로의 활약에 주목해 본다. ☐

권해진 기자